

뉴스 라운드업

- 미국의 이란 목표물 추가 공습에 유가 급등, WTI 90.22 달러(+5.20%)로 한 달래 최고치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우려 재부각
- 글로벌 국채금리 동반 급등, 미국 10 년물 4.796%(+4.2bp)로 2025 년 1 월 이후 최고치, 일본 10 년물은 전일 3.005%로 1996 년 이후 처음 3% 돌파
- 뉴욕·유럽증시 하락, S&P500 -0.71%·나스닥 -1.03%·STOXX600 -0.56%로 1 개월래 최저 마감
- 달러 강세·금 동반 급락, 달러인덱스 99.68(+0.26%) 금 4,328.12 달러(-2.69%)

이란-미국 교전 재개로 유가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되며 국채금리·달러가 동반 급등하고 뉴욕·유럽 증시가 밀렸다

밤사이 미국이 호르무즈해협 인근 이란 혁명수비대(IRGC) 목표물에 대한 추가 공습을 단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정당하다"고 밝히면서 이란이 보복할 경우 더 강력한 수준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고, 이란 측도 미국이 "이번 공격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유조선 두 척이 피격됐다는 보도까지 겹치며 WTI는 전 거래일 대비 5.20% 급등한 배럴당 90.22 달러로 한 달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고, 유가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살아나며 달러인덱스는 99.68로 0.26% 상승했다. 미국 10 년물 국채금리는 4.796%까지 오르며 2025 년 1 월 이후 최고치를 새로 썼고 2 년물도 4.400%로 뛰었다. 바 연준 이사가 인플레이션이 빨리 진정되지 않으면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고 언급하며 패아 섹션을 더했는데, 이는 선물시장이 9 월 FOMC 에서 동결(31%)보다 인상(69%) 가능성을 더 높게 반영하고 있는 최근 흐름과 같은 방향이다.

국채 매도는 미국에 그치지 않았다. 독일 10 년물은 3.369%(+4.6bp)로 15 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고, 일본 10 년물은 전일 기준 3.005%(+6.4bp)로 1996 년 이후 처음 3%를 넘어섰다. 유로존 8 월 소비자물가가 3%를 웃돌면서 유럽중앙은행(ECB)의 이달 25bp 추가 인상 기대가 굳어졌고,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우에다 일본은행(BOJ) 총재에게 엔화 약세 억제를 위한 "건전한" 통화정책 운용을 주문하며 9 월 BOJ 추가 인상 명분에 힘을 실었다. 이런 금리 상승 압력 속에 뉴욕증시는 S&P500 이 0.71%, 나스닥이 1.03% 밀렸고 유럽 STOXX600 도 0.56% 내려 한 달래 최저치로 마감했다. 그동안 국채금리 급등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던 크레딧·변동성 지표가 이번엔 함께 움직인 점도 눈에 띈다. 미국 하이일드 스프레드가 263bp로 3.0bp 확대되고 VIX는 16.33으로 9.38% 뛰어, 그간 이어지던 금리-위험지표 간 괴리가 다소 좁혀지는 모습이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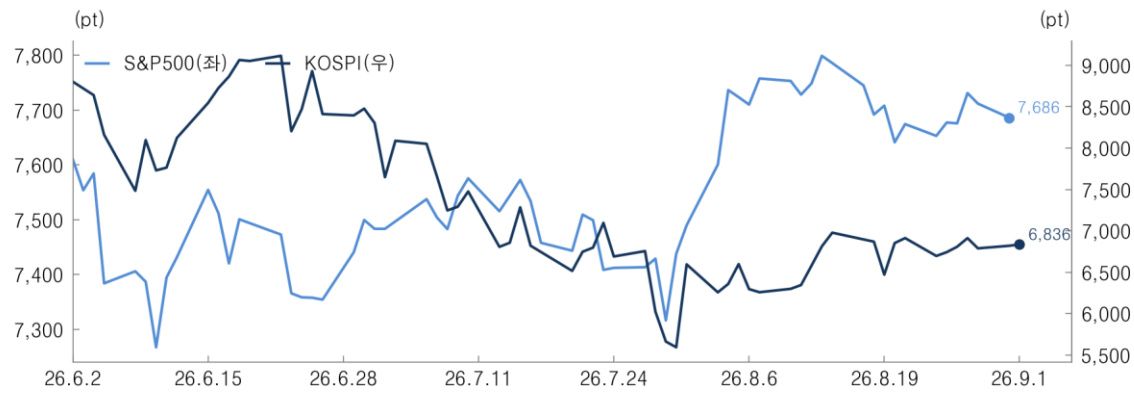
흥미로운 대목은 금이다. 통상 지정학 리스크 국면에서 안전자산으로 매수세가 몰리지만, 이번엔 달러 강세와 국채금리 급등이 겹치며 금은 오히려 2.69% 밀린 온스당 4,328.12 달러로 마감했다. 구리도 1.30% 내려, 8 월 미국 ISM 제조업지수가 54.6으로 전월(55.6) 대비 다소 둔화된 흐름(확장 국면 자체는 유지)과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한편 코스피·닛케이·항셴 등 아시아 증시는 이번 이란 공습이 시작되기 전인 전일 오후 시황을 반영한 수치로, 코스피가 0.23% 오르며 마감한 것은 밤사이 지정학 이벤트와는 무관하다 — 오늘 재료에 대한 아시아 시장의 실제 반응은 이날 개장 이후 확인될 전망이다. 이 밖에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3 회 연속 금리를 인하여 기준금리를 3.25%로 낮췄고, 베센트 장관은 이번 주 안에 이란 관련 은행 제재를 발표할 가능성을 시사해 중동 긴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주요 자산

자산별 기준 시각 표기 · 직전 확정 종가 대비 · Trading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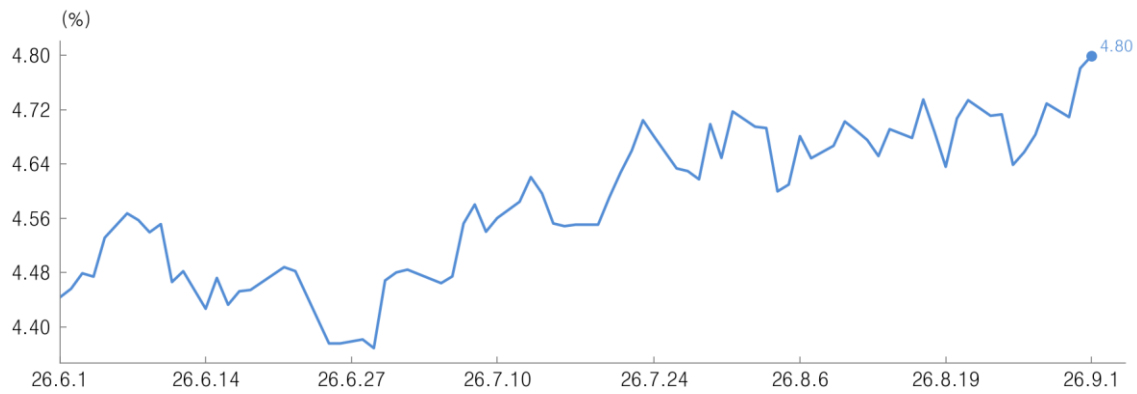
구분	자산	가격	전일 대비	기준
주식	S&P 500	7,631.47	-0.71%	9/1 종가
	나스닥	26,099.76	-1.03%	9/1 종가
	STOXX 600	647.47	-0.56%	9/1 종가
	닛케이 225	66,215.12	-0.15%	9/1 종가
	CSI 300	4,611.44	-0.30%	9/1 종가
	KOSPI	6,835.80	+0.23%	9/1 종가
	항생	25,329.73	-0.93%	9/1 종가
환율	달러인덱스(DXY)	99.68	+0.26%	9/1 종가
	달러/엔	160.15	-0.01%	9/2 종가
	유로/달러	1.16	-0.04%	9/2 종가
	달러/원	1,374.31	+0.55%	9/1 종가
	달러/위안	6.72	+0.01%	9/1 종가
금리	미국 10 년	4.796%	+4.2bp	9/1 종가
	미국 2 년	4.400%	+5.4bp	9/1 종가
	일본 10 년	3.005%	+6.4bp	9/1 종가
	독일 10 년	3.369%	+4.6bp	9/1 종가
	한국 10 년	4.371%	+5.8bp	9/1 종가
크레딧	미국 HY 스프레드	263bp	+3.0bp	8/31 종가
원자재	WTI	90.22	+5.20%	9/1 종가
	금	4,328.12	-2.69%	9/1 종가
	구리	6.60	-1.30%	9/1 종가
변동성	VIX	16.33	+9.38%	9/1 종가

S&P500 vs KOSPI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권역별 뉴스 다이제스트

권역	요약
글로벌 · 교차자산 뉴스 26 건 HIGH	• 미국-이란 군사 충돌 격화로 중동 공급 불안, 유가 4% 급등 ↳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군사시설 타격 중이며 이란의 추가 보복 시 '더욱 강하고 높은 수준'의 대응 경고 ↳ 이란 혁명수비대(IRGC) 대변인이 미국 공격에 대한 보복을 표명, 양국 간 군사 긴장 고조 ↳ 유가 4% 상승으로 호르무즈 해협 운송로 차단 시 공급 연쇄 차질 우려 확산, 에너지 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 부상 • 글로벌 채권 대매도 심화, 일본 10 년물 1996 년 이후 처음 3% 달성 ↳ 일본 국채(JGB) 10 년물 수익률이 3.0%를 기록(1996 년 이후 30 년 만의 수준), 미국·유럽 정부채 10 년물도 다년 고점 근처 거래 ↳ 배경: 중동 군사 긴장→에너지 인플레이션 우려, 주요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대, 미국(\$40 조 초과) 등 정부 부채 재정 건전성 우려 복합 ↳ 파급: 가계·중소기업 대출비용 상승으로 소비·투자 위축, 정부 채무 상환 부담 악화 전망 • 미국 8 월 경제지표 약세, 제조업·고용 신호 동시 약화 ↳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4.6(예상 55.2, 전월 55.6)으로 예상 하회, S&P Global PMI 53.9(전월 53.2)는 소폭 개선도 약세 기조 지속 ↳ 7 월 구인수(JOLTS) 727.1 만건(예상 730.0 만건)으로 고용시장 약화 신호 확인 ↳ 시사: 인플레이션 압박 속 성장 부진 심화로 경제 경로의 불확실성 증대, 연준의 금리인상·인하 판단 분기점 진입 • 이스라엘 중앙은행 기준금리 3 회 연속 인하, 글로벌 추세와 역행 ↳ 기준금리 3.50%에서 3.25%로 인하(-25 베이스포인트), 2022 년 말 이후 최저 수준으로 세 번째 연속 인하 단행 ↳ 배경: 7 월 소비자물가(CPI) 1.5%(정책 목표 1~3% 범위 내 크게 낮음), 강세 셰켈이 가격 안정에 기여 ↳ 부의장(Andrew Abir)은 인플레이션·경제 반응 추이에 따라 추가 인하 가능하다고 언급, 미국·유럽의 인상 기조와 정반대의 길을 가는 유일한 주요 중앙은행 • 신흥국 통화 약세 가속, 연준 인상 베팅으로 달러 강세 ↳ 캐나다달러 1.3905/USD(-0.4%), G10 통화 중 최대 낙폭 기록, 호주달러는 200 시간 이동평균 이하로 약세 전환, 0.7130 지지선 인근 위험 ↳ 원인: 글로벌 채권 수익률 급등·중동 불안 속 트레이더의 연준 9 월 이후 금리 인상 가능성 높게 평가, 고금리 통화(달러) 수요 증대
미국 뉴스 62 건 HIGH	• 미국-이란 군사 충돌 재개, 유가 5% 급등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재점화 ↳ 미군이 이란 혁명수비대(IRGC) 목표물에 예고 없이 공격 개시(어제 오후 4 시 GMT),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 및 미군 기지 공격에 대한 대응 ↳ 트럼프 대통령 '정당한 조치'라 평가하며 추가 공격 시사, 이란은 미군 기지·지역 내 미국 이익 시설 표적 보복 경고로 긴장 고조 ↳ 브렌트유 5% 상승으로 유가 총 4% 이상 상승 → 글로벌 채권 수익률 동반 급등 및 인플레이션

권역	요약
	압력 재점화 • 미국 국채 수익률 1 월 이후 최고 수준, 9 월 연준 인상 기대 강화 ↳ 10 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 4.798%, 2 년물도 2 월 이후 최고 수준 (유가 상승·금리 인상 기대 반영) ↳ 위시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어제)에서 긴축 성향 드러냄 → 9 월 금리 인상 기대 확산 ↳ 채권 수익률 급등으로 주식 동반 하락 구조 발생 (금리-주식 역상관) • 달러 강세·엔화 약세 심화, 미국의 일본은행 긴축 압박 노골화 ↳ 달러는 안전자산 수요·금리 인상 기대로 강세, 엔화는 달러당 160 엔선 돌파(엔저 추세 심화) ↳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와의 회담에서 '건전한 통화정책'을 직설적으로 촉구, 엔화 약세가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지적 ↳ 일본은행 9 월 금리 인상 기대 강화 • 미국 주식시장 9 월 약한 출발, 세 지수 모두 하락 ↳ Dow -0.79%, S&P 500 -0.71%, Nasdaq -1.03% (유가·금리 상승·지정학적 리스크 복합) ↳ 9 월은 역사적으로 약한 달, 경제지표 악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포지션 청산 압력으로 작용 • 미국 경제지표 악화, 고금리의 건설·고용 부진 가시화 ↳ 7 월 건설 지출 -0.5% (3 년 근처 최저), 높은 모기지 금리가 주택건설 부진 주도 ↳ 7 월 JOLTS 구인증가 +89,000 명 (시장 예상 미만), 8 월 ISM 제조업지수 (PMI) 54.6 으로 하락 (7 월 55.6) • 미국, 이란 금융기관 제재 강화 임박 (이번주·다음주) ↳ 베센트 재무장관, 이란 은행 제재 2 건을 순차 발표 예정 (경제적 질식 전략 추진) ↳ 최근 군사 충돌을 제재 강화 근거로 활용, 동맹국 지지 공언 • G20 협의 난항, 미국의 일방적 입장 반영 주장 ↳ 미국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 G20 공동성명에 'America First' 우선순위 반영 주장 → 글로벌 불균형·주권채무 재구조화 등 국제 조율 어려움 ↳ 베센트, 중국의 '왜곡적' 경제정책(과잉 생산 수출) 비판으로 보호주의 기조 노출 • 미국 정부 셧다운 회피, 12 월 11 일까지 지출 연장 가결 ↳ 하원 370-48 로 임시 지출 연장 법안 가결, 트럼프 대통령 서명 대기 (상원 8 월 8 일 사전 통과) ↳ 연말까지 임시 자금 운용 보장, 본격 예산 협상은 연말로 미루어짐
유럽 뉴스 20 건 HIGH	• 라이프치히 공항 드론 공격, 러시아 국가 기관 배후 판정·독일의 외교 보복 조치 ↳ 독일 정부가 지난달 라이프치히/할레 공항 무인기 공격의 배후를 러시아 국가 기관으로 최종 판정 ↳ 보복 조치로 본(Bonn) 총영사관과 베를린 문화센터(러시아) 폐쇄 결정 ↳ 독일 당국은 해당 사건을 유럽 전역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작전(군사·비군사 혼합 공격) 전개 차원으로 평가, 러시아는 대응을 예고했으며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독일에 연대 표시 • 유로존 물가상승 3% 상회로 채권 매도 급증·유럽중앙은행 9 월 기준금리 인상 기대 확대 ↳ 범유럽 STOXX 600 지수 -0.6% 내려 647.08 으로 한 달여 만의 최저 수준 기록 ↳ 독일 10 년물 국채 수익률 15 년 만의 고점인 3.36%에 도달, 30 년물은 2011 년 이후 최고 수준인 3.8% 대로 상승, 글로벌 채권 동반 약세가 유로존으로도 확산

권역	요약
	↳ 시장은 유럽중앙은행의 9 월 기준금리 25 베이스포인트(0.25%포인트) 인상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평가 중 • 파운드 약세 지속, 영국 10 년물 gilt 수익률 2008 년 이후 최고에도 불구하고, 런던 증시 동반 하락 ↳ 파운드 환율 1.35395 로 하락, 8 월 하순 고점 대비 약 1% 약화, 영국 10 년물 gilt 수익률이 2008 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 도달에도 통상의 금리 인상 신호(파운드 강화)는 작동하지 않음 ↳ FTSE 250(중형주지수) 3 월 이후 최악의 낙폭 기록, FTSE 100 도 2 주일 최저 수준, gilt 수익률 급등에 은행주·주택주 동반 급락 ↳ 글로벌 채권 매도 속 안전자산 선호로 달러 강세가 보다 강하게 작용, 시장이 연말까지 영국중앙은행(BOE)의 기준금리 인상 0.25%포인트 1 회를 이미 선반영 • 유로화 1.1600 선 돌파·연준 매파적 신호와 유가 상승으로 달러 수요 강화 ↳ EUR/USD 환율이 1.1600 수준을 내려침, 100 일·200 일 이동평균 지지대인 1.1570~1.1634 에서 약세 신호 심화, 1.1500 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 시장에서 논의 중 ↳ 연준의 매파적(금리 인상 선호) 신호·중동 긴장으로 인한 유가 상승·기술적 약세가 복합 작용하여 달러 수요 강화 ↳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연초 이후 최고가 경신하면서 유로존 성장 전망에 대한 우려 증가 • 영국중앙은행 금리 결정위원 만, 경제 성장 강화 신호 발언·기준금리는 '약간 높게 유지 후 필요시 조정' 입장 ↳ 영국중앙은행 금리결정위원회(MPC) 위원 캐서린 만이 지난 회의 이후 영국 경제에서 성장 신호들이 가시화됐다고 평가, 노동시장 안정화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강했다고 진단 ↳ 금리 정책 방향에 대해 '기준금리가 약간 높더라도 필요시 조정할 수 있는 게 더 낫다'는 입장 표시로 매파적 신호 유지 • 유럽 재정 적자 급증, 핀란드 2027 년 목표 -€124 억·이탈리아 8 월 -€123 억 ↳ 핀란드 여당 연립정부가 2027 년 예산에서 재정적자 목표를 -€124 억으로 설정, 당초 2026 년 -€87 억 예상에서 대폭 상향된 결과 ↳ 2026 년 적자 추정치도 이미 -€134 억으로 상향 조정 ↳ 이탈리아 8 월 국가예산 적자 -€123 억 기록, 전년동월 약 2 억 유로 수준에서 급증하여 유럽 전역의 재정 여유 축소 신호 확대 • 독일 재무장관, G20 회의에서 '불확실성은 경제 성장의 독'이라며 지정학적 리스크 경고 ↳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재무장관이 미국 애슈빌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글로벌 성장을 잠식 중이라고 경고 ↳ 이란 전쟁·미국의 관세 분쟁·중국의 경쟁 왜곡을 구체적 사례로 지적하며 G20 회원국 간 협력을 통한 불확실성 감축 강조
인도 뉴스 18 건 HIGH	• Q1 GDP 7.8% 성장 달성, 민간투자 부활이 경기 견인 ↳ 민간투자 12% 증가(전년 동기 대비 2 배 이상), 성장 동력이 소비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신호 ↳ 2025-26 년 민간 상장사 자본지출(capex) 11% 증가로 투자 회복세 확인 ↳ 경제 구조가 전지구적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갖춘 형태로 진화 중

권역	요약
	• Q1 경상수지 적자 \$-42 억으로 확대(GDP 대비 0.5%), 원유 가격 상승·무역 악화 영향 ↳ 전년 동기 \$-34 억(GDP 대비 0.4%)에서 적자폭 확대, 상품무역수지 \$-861 억 동반 악화 ↳ 직전 분기(1 월-3 월) \$65 억 흑자에서 반전 • 인도 정부, 회계연도 하반기(10 월-3 월) 7.89 조 루피 차입 목표 설정 ↳ 연간 차입 규모 조정: 원래 17.20 조 루피 → 채권 스위칭 후 16.09 조 루피로 하향, 하반기 차입은 총액의 약 49% 규모 ↳ 조장기채(조장기물) 공급 확대 필요성이 채권 트레이더들 사이에 제기 • 인도, 9 월 1 일부터 석유제품 수출 특별세 미세 조정(원유 가격 변동성 대응) ↳ 디젤 24 루피/리터 → 25 루피/리터(미세 인상), 가솔린 0 루피 → 1.5 루피/리터(신규 부과), 항공유 19.5 루피/리터 → 19 루피/리터(소폭 인하) • 8 월 전력 수요 11.6% 증가, 재생에너지 발전 42.1% 급증 ↳ 전체 전기 생산 1,800 억 kWh(전년 동기 대비), 태양광·풍력·소수력 등 재생에너지 점유 확대 추세 ↳ 열파·강수 부족으로 냉방 수요 증가한 반면, 석탄 발전 성장률 둔화, 갈수기로 인한 수력 발전 제약 • 8 월 외국인 인도 주식 매수 규모 23 개월 최고 기록 • 인도 루피 달러당 95 수준으로 2 개월 고점 도달(RBI 적극 개입·달러 유입) ↳ 인도중앙은행(RBI)의 시장 개입과 외국 은행들의 달러 공급이 주도 ↳ 일본 국채 수익률 3% 돌파 등 글로벌 채권 급등과 아시아 통화 약세 속에서도 루피는 상대적 저항력 입증
브라질 뉴스 11 건 HIGH	• Q2 GDP 분기 대비 +0.5%, 연 대비 +2.0%로 예상 상회 ↳ 분기 대비 +0.5%(예상 +0.4%), 연 대비 +2.0%(예상 +1.8%) ↳ 전분기 +1.1%에서 둔화, 가계소비 축소·고금리 부담이 성장 제약 • 8 월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 46.3 으로 50 아래, 경기 악화 신호 • 정부 연간 GDP 전망 하향, 경제학자들의 광범위한 경기 둔화 경고 • 중앙은행, 신용카드·무담보소비대출 등 고비용 신용 부문 부채 억제 조치 추진 ↳ 신용카드·무담보소비대출이 가계부채 급증의 주요 동인이라고 감독국 국장이 지적 • 보베스파 +1.9%, MSCI 라틴아메리카 +0.9% 상승, 유가 강세가 브라질 수출 기업 부양 ↳ 중동 분쟁 재발로 유가 상승, 브라질·콜롬비아 등 유가 수혜국 주식·환율이 상승 주도
남미 기타 뉴스 4 건 HIGH	• 칠레 7 월 경제활동지수 -1.5%, 광업 약세로 시장 예상을 하회 ↳ 전년동월비 -1.5%(시장 예상 +0.4% 대비 하방 서프라이즈), 전월 +2.4% 확대에서 급반전 ↳ 월간 기준 -1.7% 하락 ↳ 산업 생산 부문 -3.2% 낙폭(가장 큼), 구리 광산 중심 광업 부진이 주원인
EM 기타 뉴스 22 건 HIGH	• 세네갈, IMF 와 22 억달러 3 년 프로그램 채무 재조정 조건 합의 ↳ '개선된 공동체'를 통한 채무 재조정으로 지속가능성 회복 추진 ↳ 국제채(2031 년 만기) 50.4 센트/달러로 사상 최저가 기록, 시장의 채무 위기 평가 반영 ↳ 채무 규모 오류 보고(misreporting) 시정을 필수 조건으로, 세계은행(World Bank)·아프리카개발은행(ADB) 등 추가자금 조성 예상

권역	요약
	• 미국-이란 직접 공격으로 유가 5% 상승, 공급 차질 우려 ↳ 이란, 6 월 체결 임시 협정 준수 촉구, 트럼프의 추가 공격 위협에도 불구하고 ↳ 유조선 2 척 피격 보도로 해운 리스크 프리미엄 추가 상승 • 우크라이나 의회, IMF/EU 자금 조건인 부동산세법 부결, 약 40 억 유로 자금조달 위험 ↳ Korytskiy 총리, '국방비 약 270 억달러 부족' 경고, 필요 자금 확보 불확실 ↳ IMF 대표단이 현재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대출 프로그램을 검토 중 • 네팔 홍수로 수력발전 용량 10% 상실, 전력 수출국에서 수입국 전환 ↳ 수력발전이 네팔 전력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인프라 손상 복구 불확실 ↳ 기후 변화로 인한 히말라야 지역 에너지 투자 리스크 심화, 역내 수력 프로젝트 차질 • 남아공 제조업 약세로 랜드 약화, 8 월 구매관리자지수(PMI) 45.8 ↳ 구매관리자지수 45.8 로 4 개월 연속 약화(7 월 46.8), 경기 약세 신호 지속 ↳ 랜드/달러 환율 16.1375 로 소폭 약화(-0.2%) • 가나 COCOBOD, 국내채 재조정 2026 년 의무 완료 ↳ 23 억 가나시디(\$2.044 억) 지급으로 올해 채무 재조정 의무 소진 ↳ 2023 년 국내채 교환 프로그램(DDEP) 향후 2 년 추가 상환 예정 • IAEA, 시리아 핵 조사 해결·이란은 검사 정체 ↳ 시리아 폭격 대상이 건설 중인 반응로였음 확인, 우라늄 약 73 톤 발견 ↳ 이란은 사찰 접근 제한으로 진전 없음 • 크렘린, 푸틴-시진핑-트럼프 3 자 회담 APEC 에서 가능성 제시 ↳ 유리 우샤코프 보좌관 발언, 세 지도자 모두 정상회담 참석 예정, 성사 여부는 상황에 따라 • 체코 8 월 중앙정부 예산 적자 1.86 조 크로나로 악화 ↳ 전년 동기(1.65 조 크로나) 대비 증가, 1~8 월 누적 지출 5.3% 증가, 세수는 4.4% 증가 ↳ 바비시 행정부(2025 년 말 출범), 성장 지원 목표로 투자·소비 확대 추진 중 • 잠비아 대통령 히칠레마 재선 성공, 부정 선거 관측·경쟁자 투옥 ↳ 주요 경쟁자 문두빌레 반역죄로 구속 중 ↳ 선거 관측단 부정 지적에도 투자자들은 크게 반응하지 않는 분위기
중국 뉴스 4 건	• 시진핑 주석 10 년 만에 이집트 국민 방문, 중동 안보·경제 재정렬 배경 ↳ 이란 전쟁 이후 중동 국가들이 안보·경제 관계를 재평가하는 국면에서 이루어지는 첫 방문 ↳ 중국 기업들의 이집트 항만·공장·재생에너지 투자 진행 중이며, 양국은 지난달 연례 군사훈련을 통한 전략적 협력 강화 • 리 총리, 미국 기업의 중국 진출 환영, 양국 경제협력 강화 신호 ↳ 미중 기업협의회 방문단과의 만남에서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기회 확대·심화 촉구 ↳ 미중 경제협력 규모 대비 일부 차이는 정상이라 판단, 미국 측의 중국 관련 우려사항 해결을 위한 구체적 조치 기대 • COSCO 함선의 군사통신 감청 장비 탑재 의혹, 미국 정부 처음 공개 ↳ 중국 국영 해운사 COSCO 가 함선에 은폐된 감청 장비를 장착해 미국 등 여러 국가 연안의 군사통신을 감시하고, 유럽·북미·아시아의 함선·항공기를 추적(미국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

권역	요약
	증언) ↳ 펜타곤이 2025년 1월 COSCO를 군사 연관 기업으로 지정한 가운데, 구체적 감시 행위의 공개는 금회가 처음
일본 뉴스 2 건	• 소프트뱅크 계열 SB Energy, 미국 IPO 추진, AI 인프라 수요 확대 배경 ↳ 상반기 매출 66.4% 증가, 순손실은 전년 동기 \$2.155억에서 \$32.1억으로 확대 ↳ 엔비디아가 사모 방식으로 \$15억 투자 약정 ↳ IPO 목표 기업가치 \$500억 이상, 프로젝트 수주잔고 \$4,390억 규모 • 일본 10년물 국채 수익률, 3% 돌파, 정부는 정책 기조 유지 ↳ 재무장관이 G20 재무장관회의(노스캐롤라이나)에서 정부의 지속적 시장 대화 의지 표명 ↳ 강한 성장과 재정지속성 동시 달성이란 정책 기조 재강조
멕시코 뉴스 1 건	• 멕시코 민간분석가 올해 말 인플레이션 전망 하향, 경제성장 전망 상향 ↳ 멕시코 중앙은행 월간 설문 기준(9월 1일 발표), 2026년 말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전망을 4.00%에서 3.90%로 인하 ↳ 코어 인플레이션 전망도 4.00%에서 3.99%로 소폭 하향 ↳ 2026년 GDP 성장률 전망은 1.20%에서 1.30%로 상향 조정
프론티어 뉴스 3 건	• 파키스탄 8월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대비 11.1% 상승 • 미-이란 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폐쇄, 요르단 아카바 항구가 중동 무역 우회로로 부상 ↳ 2월 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 상업 해운의 사실상 단절 ↳ 아카바 항구의 2026년 상반기 환적 화물량 전년동기대비 155% 증가, 특히 이라크행 물품의 우회 수송이 견인 ↳ 항구 운영진들은 물동량 증가 추세의 지속을 기대

출처: Reuters,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